Sports p/06

태극전사 중동 바람 재울까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Industry p/21

삼성 소니 체험행사 마케팅

이보다 좋을 순 없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후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난이도 들쭉날쭉 수험생 혼선

EBS 연계율 70%…국어 어렵고 영어는 '물 수능'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제 오류로 망신을 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또다시 구설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사상 처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이 별다른 불상사 없이 오후 5시에 마무리 됐다.

양호환 수능출제위원장(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되 국어, 수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말했다.

◆영어 만점자 4%대 예상

수능출제본부가 밝힌 EBS교재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국어 A·B형 71.1%, 수학 A·B형 70.0%, 영어 75.6%, 사회탐구 71.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 등이다.

하지만 수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얼굴은 다소 침담한 표정이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출제돼 수험생들을 긴장시켰는데 3교시 영어는 역대 최고로 쉽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들쭉날쭉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의 만점자 비율은 '물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 9월 모의평가(3.71%)보다 더 높은 4%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학도 A·B형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사회탐구는 쉬웠던 반면, 과학탐구 과목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인문계 학생의 경우 국어에 사활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 학생은 수학과 과탐의 점수 분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지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은 "1교시 국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졌고 선택지의 내용에도 약간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며 "2교시 수학은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은 여전히 까다로워 1등급 구분점수가 94~96점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남 문일고 교사는 "중상위권 수험생들도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영어 문제가 쉬웠다"며 "만점자 비율은 6월 모의평가 5.37%과 9월 3.71%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17일까지 문제·정답 이의신청

한편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126명 적은 64만621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결시율은 1교시 7.04%(4만5050명), 3교시 8.33%(5만2798명)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2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주의 개봉작

울브스

장르 판타지/감독 데이비드 헤이터/출연 루카스 틸, 메릿 패터슨

학교 풋볼 팀 주장, 모범생, 잘생긴 외모에 퀸카 여자친구까지 모든 것에 완벽한 18세 고등학생 케이든. 어느 날 눈을 뜬 순간 그는 끔찍하게 살해된 부모님과 사나운 늑대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진실을 찾아 나선다.

아더 우먼

장르 로맨틱 코미디/감독 닉 카사베츠/출연 카메론 디아즈, 레슬리 만, 케이트 업튼

골드 미스 변호사 칼리,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케이트, 그리고 섹시글녀 엠버는 자신들이 한 남자 마크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일한 적을 갖게 되는 이들은 마크를 향한 복수의 KO펀치를 준비한다.

철의 꿈

장르 다큐멘터리/감독 박경근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인 고래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 울산. 이곳에서 오래 전 푸른 바다를 넘실대던 고래의 꿈을 철의 꿈으로 바꾼 사람들을 만난다. 울산을 배경으로 고래를 잡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조선소를 탄생시킨 이야기를 담았다.

지옥이 뭐가 나빠

장르 액션/감독 소노 시온/출연 쿠니무라 준, 츠츠미 신이치

야쿠자 보스 무토는 인맥을 동원해 아내의 소원인 배우 지망생 딸을 영화에 데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딸의 말썽으로 촬영이 무산되자 무토는 직접 제작자로 나서 야쿠자 조직원들을 스태프로 동원하게 된다.

/장병호기자

사람다운 삶 향한 뜨거운 외침

무거운 노동 문제 공감가게 풀어내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카트

자본과 노동이라는 테마는 상업영화에서는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다. 현실을 잊게 함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상업영화에서 자본과 노동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13일 개봉한 '카트'(감독 부지영)는 상업영화의 틀 안에서 노동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쉽지 않은 시도를 하는 작품이다. 감독·제작자·배우들이 여성이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자칫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기획이다. 그러나 완성된 영화는 작품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화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과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희(염정아)다. 선희는 자본이 무엇이고 노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평범한 아줌마다.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녀는 5년 동안 꾸준히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선희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카트'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선희를 비롯해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혜미(문정희),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진(천우희), 그리고 정규직인 동준(김강우)을 친엄마처럼 대하는 청소부 순례(김영애)가 그들이다. 여기에 선희의 아들인 태영(도경수)과 태영의 친구 수경(지우)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영화는 노동이라는 화두를 본격적으로 건드린다.

'카트'의 미덕은 무겁게 느껴지는 노동이라는 주제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선희는 이미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혜미의 손길에 노조원 대표가 돼 길고 긴 투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선희는 회사를 향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주체적인 인물이 된다. 선희의 변화와 성장이 관객에게 가슴 뭉클함을 전한다. 민낯으로 현실적인 인물이 된 배우들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다.

'카트'의 주제는 명확하다. 영화 후반부에서 "사람 대접해달라"는 선희의 외침 속에 그 주제가 함축돼 있다. 적어도 사람대접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카트'는 그렇게 관객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HOT SCREEN

스크린으로 만나는 청춘의 고민

'거인' '레디액션 청춘' … 아이돌·신예 열연

이번 주말 극장가에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두 편의 영화가 개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비롯해 10~20대 관객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청춘영화다.

13일 개봉한 '거인'(사진)은 너무 빨리 세상의 짐을 짊어지게 된 17세 소년 영재(최우식)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영화다. 영화를 연출한 김태용 감독은 23세 때 단편 '얼어붙은 땅'으로 국내 감독으로서는 최연소로 칸영화제에 진출해 주목을 받았다. '만추'의 김태용 감독과는 동명이인이다.

'거인'은 가족을 떠나 그룹홈에서 10대 시절을 보냈던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됐다. 최근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에 출연 중인 배우 최우식이 주연을 맡았다. 최우식은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에는 연약한 소년 캐릭터로 열연을 펼쳤다. 올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설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지만 세상과 마주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거인'과 같은 날 개봉하는 '레디액션 청춘'은 4편의 단편을 모은 옴니버스 청춘영화다. 아이돌 스타와 20대 젊은 신인 감독들이 뭉쳐 청춘들의 고민을 솔직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뒷소문에 시달리는 전교회장의 이야기를 그린 '소문', 논산훈련소 입소 과정을 액션활극으로 담은 '훈련소 가는 길', 은행털이 청년들의 이야기인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여고생들의 성장통 '플레이걸' 네 편으로 구성됐다. 슈퍼주니어 동해, 포미닛 남지현, JJ 아일랜드 송승현 등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해 배우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구원, 정예인, 서은아 등 영화와 드라마로 주목 받은 신예 배우들도 함께 했다.

/장병호기자

에픽하이

B1A4

풍부한 사운드 '힙합' vs 달콤하고 착한 '아이돌'

에픽하이 아시아투어 포문·B1A4 해외투어 피날레

Top Stage

2년 만에 정규 8집 음반 '신발장'으로 컴백한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한중일 7개국 아시아 투어 콘서트 '퍼레이드 2014'에 나선다.

에픽하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서울 콘서트를 연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 대구 천마아트센터,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을 거쳐 27~28일 부산의 소향씨어터를 마지막으로 하는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

이번 콘서트는 5년 만에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다. 밴드 칵스의 숀, 박선빈, 라이프엔타임의 진실 등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픽하이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윤하도 게스트로 함께 한다.

해외 콘서트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2일에는 상하이 자연쉐이완 문화센터 소극장에서, 23일에는 베이징 탱고라이브하우스에서 중국 공연을 개최한다. 2009년 월드 투어 이후 5년 만에 일본도 찾는다.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쿄·나고야·오사카 등에서 총 5회 공연을 한다.

남성 아이돌 그룹 B1A4는 첫 해외투어의 피날레 공연이자 국내 4번째 단독 콘서트인 '2014 B1A4 로드 트립 투 서울 – 레디?'를 15~16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B1A4는 올해 3월 대만을 시작으로 상하이·필리핀·일본·호주·미국에서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서울 콘서트는 해외 투어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한층 성숙한 멤버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개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한 스페셜 스테이지, 멤버들의 평소 음악 취향을 엿 볼 수 있는 무대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을 공동제작하는 CJ E&M 콘서트사업부 관계자는 "서울에서의 피날레 공연인 만큼 편곡·영상·의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콘서트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곡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15%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공연마다 팬들과 함께 특별한 기부 문화 만들기에 앞장 서온 B1A4는 이번 공연에서도 기부 부스를 운영한다. 모은 기부 물품은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나눌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뜨겁도록 치열한 사랑, 따뜻하게 스며드는 사랑, 달달해서 설레는 사랑, 오래되어 미지근해진 사랑, 지독한 듯 집착하는 사랑, 뒤늦게 찾아온 사랑.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하트를 그리라고 하면 10명 중 7명은 핑크색으로 칠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그들이 느낀 사랑은 핑크빛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많은 문구용품의 하트들이 핑크색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초록빛 사랑에 싱그러워지기도, 새빨간 사랑에 불타오르기도, 검은빛 사랑에 죽어갈 뻔 하기도 했습니다. 짐 다인(1935~)이 그린 하트 연작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왔던 온갖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심장에는 지나간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색이 칠해졌겠지요. 예뻤던 사랑의 색만 있었더라면 거칠게 다양하고 치열한 색들의 부딪침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괴롭게 했던 사람도, 멀리서 바라보니 조화로운 작품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래의 할머니가 된 내가 아직 어린 나에게 조언해주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진심으로 전달하는 하루 되세요.

"내 그림 속 하트를 사랑의 상징으로만 여긴다면, 형태만 보고 쉽게 생각하는 거다. 피 흘리는 심장일 수도 있지 않은가? 내 하트는 총체적 상징이다. 나는 하트로 온 우주를 그리고 있다." – 짐 다인

/아트앤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힐링' 나누는 송년음악회

메트로신문 주최…성원에 초청 이벤트 연장

국내 최대 무료 종합 일간지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이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메트로신문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위로'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레퍼토리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이자 예술 감독을 맡았던 서희태(사진)의 지휘 아래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 스칼라오페라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인류의 위대한 음악적 유산 중 하나인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 '합창'을 선사한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인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의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언제나 자유롭게',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니도 아시다시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메트로신문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송년음악회 초청 이벤트를 당초 예정됐던 12일에서 17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13일부터 17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100명(각 1인 2매)을 추첨해 관람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차세대 '감성 발라더'의 탄생

슈퍼주니어 규현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스24 무브홀에서 가을유치 쇼케이스를 열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규현 첫 번째 솔로앨범 '광화문에서'

주말엔 이 노래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자신만의 목소리가 담긴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은 13일 오전 0시 공개 직후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승승장구 중이다.

규현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광화문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규현은 이날 현장에 초대된 팬 200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했다. 솔로앨범 수록곡 '어텀넘 선셋'인 으로 쇼케이스의 포문을 열었다. '이터널 선샤인'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와 작사가 양재선이 작업한 노래로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규현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쓸쓸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는 솔로 앨범이 음원차트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운 날씨가 도와준 것 같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타이틀곡 '광화문에서'는 연인과의 이별을 계절의 변화에 빗대어 표현한 서정적이고 잔잔한 발라드 곡이다. 규현은 '예능돌'로도 맹활약 중이지만 이번 앨범에서 만큼은 차세대 '감성 발라더'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그는 "약 2년 전부터 녹음 활동을 병행하며 곡도 모으고 녹음하며 틈틈이 준비한 앨범"이라며 "슈퍼주니어에서 첫 솔로 앨범이라 부담이 컸는데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아 한 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광화문에서'를 작곡한 켄지를 비롯한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과 에코브릿지가 의기투합한 작곡팀 허니듀오는 '밀모습이 참 예뻤구나'를 만들었다. 히트곡 '두 사람' '좋을텐데' 등을 탄생시킨 작곡가 윤영준과 작사가 양재선은 '시광이 숨긴 말들'로 참여했다. 규현은 "사실 성시경 선배의 '좋을텐데' 같은 느낌의 노래를 원했는데 감성이 아주 같은 곡을 주셨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규현이 지난 9월에 열린 슈퍼주니어의 콘서트 '슈퍼쇼6' 서울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인 자작곡 '나의 생각 너의 기억'도 이번 앨범에 포함돼 있다. 선배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깊은 밤을 날아서'도 수록돼 있어 규현의 다양한 목소리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규현은 "이문세 선배의 '광화문 연가'와 타이틀곡 '광화문에서'가 함께 떠오를 수 있는 노래가 된다면 영광"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깊은 밤을 날아서'를 앨범에 담았다. 이번 앨범에서 유일하게 신나는 템포의 곡이라 녹음할 때도 굉장히 즐거웠다"고 설명했다.

/김지민 기자 languam@

개성 있는 로맨스 '모던파머'

주말엔 본방 사수

농촌 적응기·네 청춘의 사랑… 안방에 '에너지'

SBS 주말 미니시리즈 '모던파머'의 이홍기·이하늬가 곽동연·한주현 커플을 예찬했다.

현재 '모던파머'는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로 귀농을 선택한 네 청춘(이홍기·곽동연·박민우·이시언)의 농촌 적응기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을 둘러싼 사랑 이야기로 극의 탄력을 받고 있다.

13일 경기도 일산 SBS 드라마 제작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곽동연은 "지난 방송을 기점으로 송화란(한주현)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며 "서로 좋게 발전할 것"이라고 커플의 관전포인트를 말했다.

이에 이홍기가 "두 사람은 현장에서 정말 커플 같다"고 하자 이하늬는 "곽동연(17)과 한주현(28)은 열 살 차이인데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어울린다. 예쁘고 풋풋한 커플"이라고 거들었다.

곽동연은 극중 밴드 엑설런트 소울즈의 막내 한기준 역을 맡았다. 귀농한 후 농촌 마을에서 뱀을 잡고 다니는 연변에서 온 불법체류자 송화란과 사랑을 시작했다.

이하늬는 '모던파머'에서 억척스러운 마을 이장 강윤희로 분했다. 현재 그는 이민기(이홍기)·강혁(박민우)과 삼각 로맨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강윤희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지만 미혼모의 아픔을 환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현재 이민기·강혁을 동심에서 남자로 보고 있다. 지난주에는 과거의 남자도 나타났다. 로맨스가 진행되면서 극 전개에 가속도가 붙을 거 같아 배우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언은 밴드의 만형 유한철로 분해 의문의 여인 이수연(권민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시언은 "유한철의 일방적인 변태 같은 사랑이라는 점이 우리 커플의 관전 포인트"라며 "유한철은 내가 봐도 여자들이 싫어할 스타일이다. 이수연은 계속 도망 다닐 것 같은데 유한철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걸 알게 되면 잠깐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세 커플의 개성 있는 로맨스가 기대되는 '모던파머'는 만화적인 연출과 코믹한 대사로 정극과 시트콤의 경계를 허물며 주말 안방에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45분에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econ@metroseoul.co.kr

SBS 주말미니시리즈 '모던파머' 이홍기·박민우·곽동연·이하늬·이시언·서동원·박영수(왼쪽부터) /SBS 제공

알고보는 TV

스산한 가을 귀신의 집 '원혼'

박은혜 9년 만에 KBS 복귀… 일제강점기 무대

KBS 2014 드라마스페셜 '원혼' 박은혜·임재모 /블러스미디어 제공

배우 박은혜가 KBS2 2014 드라마스페셜 '원혼'으로 9년 만에 KBS로 복귀한다.

지난 11일에 열린 '원혼' 제작발표회에서 박은혜는 "결혼하기 훨씬 전인 20대에 KBS 작품을 한 뒤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롭기도 하지만 낯설다"고 컴백 소감을 전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이재준 감독 데뷔작을 해야 앞날이 창창할 것이라고 했다. 평소 공포물을 좋아하는데다 시대극도 하고 싶었는데 '원혼'은 공포와 시대극을 모두 갖춘 작품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원혼'은 KBS1 '정도전'을 강병택 감독과 공동 연출했던 이재훈 감독의 데뷔작이다. 드라마 '굿닥터' '신의 퀴즈'를 집필한 박재범 작가가 함께 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은 냉혹한 판임과 서인욱(인재모)이 독립운동가들의 위치를 파헤 전쟁에게 받은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곳에서 서인욱·민유선(박은혜) 부부의 아이들은 귀신을 보게 되고 민유선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박은혜는 민유선 역을 통해 두 딸에게는 강인하고 따뜻한 모성애를 간직한 엄마이자 조선을 사랑하지만 친일파 남편의 길을 지켜야 하는 아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연기한다.

박은혜는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은 친일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재훈 감독은 "공포물이다 보니 음향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에 맞는 음악을 선정했고 시대극 색깔이 잘 살아나도록 연출했다"며 "현대극이나 사람 이야기에 질린 시청자라면 '원혼'을 색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14일 밤 12시10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세대를 초월한 두 스타의 만남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영화 '퓨리'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브래드 피트(왼쪽)와 로건 레먼

연합뉴스

weekend interview

2차대전 당시 전차부대 활약상 그린 영화 리더십 강한 대장·신참 병사로 호흡 맞춰 한국과도 깊은 인연…남다른 관심 나타내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인 브래드 피트, 그리고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고 있는 로건 레먼이 최정예 전차부대를 이끌고 국내 극장가에 상륙한다. 두 배우는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퓨리'에서 전차부대의 대장과 병사로 호흡을 맞췄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두 배우를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만났다.

◆ 브래드 피트 '성공의 기반은 실패'

브래드 피트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다. 1991년 '델마와 루이스'의 섹시 스타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그는 '파이트 클럽', '오션스 일레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등 대중적인 영화부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트리 오브 라이프' 등 작품성 있는 영화까지 폭넓은 필모그래피로 명성을 쌓아왔다. 또한 제작사 플랜B를 통해 '월드워Z', '노예 12년' 등의 영화를 제작해 왔다.

'퓨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부대를 이끄는 '워 대디' 돈 콜리어가 4인의 병사와 함께 '퓨리'라는 이름의 탱크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진격하면서 벌어지는 전투를 그린 전쟁영화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주인공 돈 콜리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을 이끄는 리더십 강한 인물이다.

브래드 피트는 "지금은 잔인한 시대다. 하루는 서로 죽일 듯 싸우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친구가 돼 같이 술을 마시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세상의 잔인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주제를 설명했다. 극중 역할에 대해서는 "엄격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리더로서 자신만큼은 긴장을 풀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브래드 피트는 데뷔 이후 큰 굴곡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실패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모든 성공의 기반은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골에서 살았던 어릴 적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됐다는 그는 "영화를 통해 받은 것을 매 작품마다 반영하고자 한다"며 "독창적이고 신선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이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제작자로서의 신념도 접할 수 있었다. 브래드 피트는 "내가 만든 제작사는 3명이 이끄는 조그만 회사다. 지금의 할리우드는 상업적인 대작들을 주로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 제작사의 모토는 반대로 조금 더 작고 복잡하며 심오한 작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퓨리'에 제작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명에 제작자로 참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제작은 영화를 연출한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도맡았다"고 설명했다.

◆ 로건 레먼 "한국영화는 혁신 독창적"

로건 레먼은 '퍼시 잭슨' 시리즈와 '삼총사 3D', '월플라워' 등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의 차세대 스타다. 지난 2011년에는 '삼총사 3D'로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한국 관객과 첫 만남을 가졌다.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그는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 오게 돼 영광이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로건 레먼은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여행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는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해 가고 싶은 식당과 먹고 싶은 음식을 정리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치볶음밥, 불고기, 소주 등을 좋아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빠놓지 않았다. 로건 레먼은 "'명량'의 전투 장면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영화와는 어떻게 비슷하고 다를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브래드 피트도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머니볼'로 2011년 한국을 첫 방문한 이래로 2013년 '월드워Z'에 이어 '퓨리'로 세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 브래드 피트는 "한국은 내가 좋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오게 됐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KLPGA 신인왕 위한 마지막 티샷

백규정·고진영·김민선…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개막

주말의 왓스팟

2014시즌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신인왕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4'에서 결정된다.

19세 동갑내기들인 백규정(CJ오쇼핑)과 고진영(넥슨), 김민선(CJ오쇼핑)은 14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72·6276야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 시즌 내내 치열하게 전개된 신인왕 타이틀 경쟁이 이번 대회에서 판가름난다. 이들 세 명은 대회 1라운드에서 한 조에 편성될 예정이다.

현재 신인왕 포인트 1위는 2244점을 기록한 백규정이다. 2위 고진영은 74점 적은 2170점으로 뒤를 쫓고 있다. 김민선은 2167점을 기록해 3위에 랭크돼 있다. 백규정과 고진영의 신인왕 2파전 구도는 지난 7일 개막한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김민선이 우승을 차지해 190점을 획득함에 따라 3파전으로 확대됐다.

백규정 고진영 김민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왕 포인트 230점을 가져간다. 세 명 중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는 신인왕까지 거머쥔다. 총 66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60위 안에 들면 25점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때문에 백규정, 고진영, 김민선은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민선의 샷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민선은 지난 ADT캡스 챔피언십 우승이 이번 시즌 첫 우승이었다. 우승없이 매 대회 꾸준한 성적을 올렸던 김민선은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대역전극을 노리게 됐다.

이와 함께 시즌 5승을 올리며 이미 상금왕과 대상포인트 1위를 모두 확정한 김효주(19·롯데)는 상금 기록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11억9740만원의 상금을 모아 역대 단일 시즌 최고 상금 기록을 세운 김효주는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이 걸린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시즌 총상금 13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번 대회 최소 상금이 약 26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미 어없는 한 총상금 12억원은 돌파해 놓았다.

한편 전년도 우승자인 이민영(22)도 이번 경기에 참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 타이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클래식에서 5년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오른 허미정(25)도 5년 만에 KLPGA 투어에 나선다.

/김학철기자 kimc0504@metroseoul.co.kr

슈틸리케號 중동 바람 재울까?

손흥민 컨디션 난조… 요르단전 출전 불투명

주말의 스포츠월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중동원정 길에 올랐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어떤 조합으로 최종 선발 라인업을 구축해 요르단전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팀이 14일 오후 11시 30분에 상대할 중동 원정 첫 번째팀은 FIFA 랭킹 74위 요르단이다. 공격진 전술 변화를 예고한 슈틸리케 감독은 이날 경기에 나설 공격진으로 이근호(29·엘 자이시)를 필두로 한 플랜 A와 박주영(29·알 샤밥)을 중심으로 한 플랜 B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4-3-3 포메이션을 큰 틀로 한 제로톱 전술은 공격진을 누구로 꾸밀지가 관건이다. 이근호를 중심으로 하는 플랜 A는 왼쪽에 김민우(24·사간도스), 오른쪽에 한교원을 세우고 조영철(25·카타르SC)과 남태희(23·레퀴야)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한다. 기성용(25·스완지시티)은 박주호(27·마인츠), 김영권(24·광저우 에버그란데), 홍정호(25·아우크스부르크), 차두리(34·서울)로 이어지는 포백 앞에 미드필더로 나선다.

플랜 B는 박주영을 중심으로 김민우와 이청용(26·볼턴)을 좌우측면 공격수로 활용한다. 구자철(25·마인츠)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기성용은 한국영(24·카타르SC)과 함께 중원을 지킨다. 포백은 윤석영(24·QPR)·장현수(23·광저우 부리)·곽태휘(33·알 힐랄)·김창수(29·가시와레이솔)가 구성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은 종아리 근육 피로로 이날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요르단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컨디션이 좋지않아 요르단전은 거르고 18일 있을 이란전에 출격할 전망이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3일

도로공사	3	0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3	2	대한항공

프로농구 전적 13일

모비스	30	21	26	11	88
LG	25	13	20	18	76
인삼공사	8	14	24	17	83
오리온스	23	21	19	29	92

'테이블 위의 전쟁' FA시장 뜨겁다

1군 진입 KT, 겨울 야구 '큰손' 나설지 관심

삼성 라이온즈의 정규리그 우승과 가을 야구 제패로 2014 시즌 프로야구가 마무리 됐다. 이제 곧바로 겨울야구의 시작이자 '테이블 위의 전쟁'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16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인 16일에 FA 자격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매 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전해야 하고 투수의 경우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2 이상 던진 시즌이 9시즌(4년제 대학 졸업시 8시즌)에 도달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권리를 행사하려는 선수는 18일까지 직접 FA를 신청할 수 있고 KBO가 19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본격적인 전쟁은 20일부터다. FA를 신청한 선수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에 나서고 여기서 결렬되면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도 계약까지 못하면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다시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는 '100억 시대'를 조심스레 노크하고 있는 SK 와이번스의 최정상급 3루수 최정이다. 최정과 함께 SK에는 FA자격을 갖춘 선수가 김강민·조동화·나주환·박진만·이재영 등 6명이다. 윤성환·안지만·배영수·권혁·조동찬 등 삼성에도 이 자격이 예상되는 대어급 선수가 많다.

아울러 롯데의 좌완 에이스 장원준을 비롯해 LG의 박용택, KIA의 송은범 등도 이번 FA 시장을 달굴 주요 선수로 꼽힌다. 여기에 내년에는 제10구단인 KT 위즈가 1군 진입을 앞두고 있어 '큰 손'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신생구단 KT는 특별 선수지명권을 가지고 있다. 9개 구단은 오는 24일까지 20명의 보호선수 명단을 KT에 제출해야 한다. KT는 29일까지 각 구단에서 보호선수를 제외한 한 명씩을 10억원에 지명해 영입할 수 있다. FA와 군 보류선수, 신고선수 등은 자동으로 20인 보호명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철기자

최정 윤성환 장원준

50대 가장이 지구 한 바퀴를 뛰었다

사람이야기

■이신욱 GS건설 검사팀 부장

42.195㎞.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 거리를 선수도 아니면서 100번 이상 뛴 사람이 있다. GS건설의 이신욱(55) 검사팀 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인 그는 지난 7월 1467㎞를 달려야 이룰 수 있는 울트라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80번째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한 달 평균 200㎞ 가까운 연습량을 포함하면 지구 한 바퀴를 뛴 셈이다.

◆신경정신과 잘못 찾아 입문

지금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 부장이 처음부터 마라톤에 큰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거?" 소리가 나올 만큼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됐다.

"2002년 어느 날 손·발가락 끝이 찌릿한 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신경외과를 간다는 게 신경정신과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담당에서 달리 나왔는데 묘하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달려보자 결심을 했죠."

우연히 뛰었는데 기분이 좋아 계속 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집 근처 석촌호수와 회사 뒤편 남산에서 훈련을 하면서 몇 차례의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러자 점점 풀코스에 욕심이 생겼고, 6개월 만에 기회가 왔다.

"다른 신청자가 갑자기 펑크를 내서 그 대타로 나가는 것을 배주기 배번이라고 하는데, 제 첫 도전이 바로 그거였어요. 계획을 하고 준비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4시간 54분 만에 완주를 했죠. 바록 옷에 사타구니가 다 쓸려 며칠을 고생했지만요."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만큼, 남은 도전은 기록 단축이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보망으로 꼽히는 sub-3(42.195㎞를 2시간 59분 59초 내 골인하는 것)는 이 부장도 꿈꾸던 바다. 이를 위해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잠실보조경기장을 찾아 훈련을 받았다.

"10번째 경기에서 1분도 쉬지 않고 뛰었는데 3시간 45분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sub-3를 달성하려면 46분을 단축해야 하는데,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울마라톤클럽에 가입해 매일 연습했고, 공식 대회에서 3번의 sub-3를 기록했어요."

◆기록 연연 않고 주변 돌아보기 시작

풀코스 완주에 sub-3 달성까지, 이 기록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 이 부장은 드디어 올 7월 울트라마라톤 그랜드슬래머가 됐다. 울트라마라톤의 그랜드슬램은 ▲서해 강화도~강릉 경포대 횡단 308km ▲전남 해남~강원도 고성 전망대 종단 622km ▲부산 태종대~임진각 종단 537km의 3개 대회에서 성공한 것을 말한다.

물론 그에게도 실패는 있었다. 이 부장은 "2010년 처음 한반도 횡단에 도전했을 때였죠. 연습량도 부족했고, 한 번 포기하겠다 마음을 먹으니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다시는 내 사전에 포기는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 건강관리 위해 뛰다가 극한의 기록까지 도전
>
> 코스 잘못 들면 원점으로 인생·일도 마찬가지겠죠

2011년 재도전에 성공한 뒤 자신감을 얻었지만 2012년 도전한 537㎞ 종단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 길을 일러주는 일반마라톤과는 달리 울트라마라톤은 참가자가 직접 코스를 알아보고 숙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길을 잃었던 것이다.

"태종대에서 임진각까지 당시 3명에서 구간별 길 찾기를 담당했는데 한 사람이 도중에 하차하면서 모두 길을 잃게 됐어요. 그럴 때는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과감함이 필요한데, 달린 길이 아까워서 애매다 포기하게 됐어요."

이처럼 마라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스포츠다. 체력과 끈기는 기본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는 힘든 운동이다. 그러나 이 부장은 이게 바로 마라톤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뛰어요. 그 과정에서 복잡했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요. 특히 울트라마라톤에서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일과 인생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법도 배웠고요. 전 달릴 때 제가 살아 있는 것을 느껴요.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뛰겠습니다."

/박선옥기자 ssop5128@metroseoul.co.kr

아시아나 '사랑 나누기' 캠페인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12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기아대책 본부에 물리핀 빈민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누기 캠페인' 기부물품 선달식을 가졌다.

아시아나 임직원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1만1000여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기부 물품은 기아대책과 연계한 바자회 행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필리핀 마닐라의 동알 피대 빈민가인 톤도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용품 의류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조규영 전략기획본부장은 "매년 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임직원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며 "아시아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기부물품이 필리핀 빈민가 아동의 학업 및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또 ▲농·산·어촌 벽지에 있는 학교에 식인감화를 하는 재능기부 프로젝트 ▲중국 위항지에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하는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 ▲세계 문화유적지의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희탁기자 ferrari5@

삼성重, 판교시대 열다

오늘 연구·설계개발 인력 입주

삼성중공업이 '판교 시대'를 연다.

삼성중공업은 13일 거제조선소, 서울 서초사옥에 나눠 근무하던 해양플랜트 분야 설계와 연구개발 인력이 14일부터 판교 R&D센터에 입주한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중공업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부문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R&D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 5만7460㎡(약 1만7400평)에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지난달 준공했다.

삼성중공업 판교 R&D센터 전경.

판교 R&D센터는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와 자동차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설계·연구 인력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삼성엔지니어링 설계 인력 가운데 해양플랜트 톱사이드 상세 설계가 가능한 인원도 1000여명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은 판교 R&D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플랜트 기술개발과 설계역량 강화는 물론,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판교 R&D센터에 입주하는 연구인력은 해양플랜트 톱사이드(원유 및 가스 처리설비) 공정과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원들의 중장기 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숙식 해결이 가능한 특별 연구공간도 마련됐다.

12월에는 서울 서초사옥에 근무하는 영업과 지원부서 인력도 판교 R&D센터에 입주할 계획이다. /김토 기자 rajk ru@

"반갑다 스키야!"

/보광 휘닉스파크 제공

강원도 등 주요 스키장 속속 개장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의 계절이 다가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도를 시작으로 스키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먼저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14일 오전 12시 발라드 슬로프 1면을 오픈하며 겨울시즌을 시작한다. 오픈 당일 슬로프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스키월드는 올 시즌 오픈을 기념해 리프트를 무료로 개방하고 장비렌탈을 1만원 특가에 제공한다. 아울러 개장 후 첫 주말인 15일과 16일 역시 특가 요금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전면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을 개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0종목이 열리는 보광 휘닉스파크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펭귄 슬로프에 총 67대의 제설기가 가동됐으며 11월 말까지 휘닉스파크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리프트 이용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야간스키뿐만 아니라 익일 새벽 4시30분까지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는 백야 스키도 가능하다.

또 평창 용평리조트는 13일 오전 일부 슬로프를 개장했다. 스키장은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자 핑크 슬로프에 미리 설치된 제설기를 동원해 개장 준비를 마쳤으며 주말에는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춘천 엘리시안 강촌스키장 역시 리프트 무료 이용과 장비렌탈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슬로프 개장을 알렸다. 특히 설원 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이스키모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글루가 준비되며 그 주변에는 영화 촬영기술인 타임슬라이스기법을 적용한 포토이벤트 존도 마련돼 겨울 추억을 쌓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선 하이원 스키장은 원통형 매트와 사각 매트 등을 슬로프에 대대적으로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즌을 맞이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2대를 비롯해 객실 무료 쿠폰, 리프트 무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는 이벤트도 풍성하다.

이외에도 이달 28일에는 원주 오크밸리 스키장이 겨울 손님을 받기 시작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도 11월 말 12월 초 사이에 문을 열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수험표만 있으면 혜택 팡팡!

특급호텔마다 수험생 위한 이벤트

특급호텔들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레스토랑 모모 카페에서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16일까지 모모 카페의 런치 브런치·디너 뷔페를 수험생 본인에 한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팔래스호텔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수험생들에게 무료 뷔페 이용 혜택과 코스요리를 제공한다. 카페&뷔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를 4인 이상 방문하면 되고 호텔 2층에 위치한 중식당 서궁에서도 4인 이상 방문해 코스요리를 주문하면 수험생 가족 중 1명은 동일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The-K호텔서울은 16일까지 '굿바이 수능'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수험표를 갖고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를 방문하면 수험생들과 동반 고객들에게 런치와 디너 상관없이 20% 할인되는 가격 혜택이 주어진다.

더 리버사이드 호텔은 수험표를 지참해 방문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뷔페 레스토랑 더 가든키친과 중식당 따롱에서 30% 할인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파이팅 수험생 이벤트'로 수험생을 응원한다. 이달 말까지 라구뜨를 방문한 수험생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뷔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텔은 오픈 4주년을 기념한 '3+1 할인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문화마케팅硏, 관광 플랫폼 '트래블아이' 오픈

● 문화마케팅연구소(대표 이호영)가 국내 230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관광 플랫폼 '트래블아이'를 오픈했다. 트래블아이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검색 기능을 갖췄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고객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어, 수험생 위한 할인 이벤트

● 온라인투어(대표 박배원)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2월 말까지 온라인투어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3% 추가 할인되며 신라면세점 1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롯데인터넷면세점 적립금 등 다양한 경품도 준다.

물리아 발리 '아시아 톱 20 호텔'로 선정

● 물리아 발리가 2014 콘데나스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er) 영국 독자 초이스 부문에서 '아시아 톱 20 호텔'로 선정됐다. 발리의 휴양 지역인 누사 두아(Nusa Dua)에 위치한 물리아 발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대표하는 호텔&리조트로 올 스위트 부띠끄 호텔인 더 물리아(The Mulia)와 단독 빌라로 구성된 물리아 빌라(Mulia Villas) 그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물리아 리조트(Mulia Resort) 등 총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서 신나게~

상상놀이터·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등 열려

어느새 차가운 겨울이 다가왔다. 코끝을 시리게 하는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가 풍성하다.

먼저 한국잡월드에서는 다음달 28일까지 어린이 체험전 '상상놀이터'가 열린다.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놀이 체험전으로 전시뿐아니라 직접 만지고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가득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법의 숲'과 공감각적 상상 체험이 가능한 '바람의 숲' 등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국내 대표 디자인 행사 '2014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Seoul Design Festival)'이 개최된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콘셉트로 마련된 행사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디자이너 프로모션'과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디자이너스 랩'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경영' 전시관에서는 네이버가 웹툰 스튜디오를 마련해 조석과 어말년 등 13인의 인기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 이색 전시가 진행된다. 아울러 장외 전시인 '서울 디자인 스팟 투어' 역시 17일부터 30일까지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을 위한 행사도 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하나투어 결혼박람회'는 웨딩과 허니문, 혼수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박람회 특별가가 제공되며 현장 계약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투어 마일리지도 주어진다. 게다가 하나투어는 허니문 상품 계약자에게 별도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고 하나투어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하는 혜택도 준다.

/황재용기자

식·음료업계 수험생 할인 행사 봇물

할인에 무료 제공까지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식음료 업계가 지난 1년간 고생한 수험생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할인 등의 행사를 준비했다.

스테이크 하우스 빕스(VIPS)는 수능 당일인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빕스 수험생 가격제'를 선보인다.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기존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1인 샐러드 바를 즐길 수 있다. 수험생 가격은 평일 점심 1만3900원, 평일 저녁 1만9900원, 주말 2만1900원이다. 수험표를 제시한 본인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도 13일부터 23일까지 'Fly High, 내 꿈에 날개를 달아줘'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수능 수험표뿐만 아니라 토익, 공무원, 자격증, 고시시험 등 2014년도에 응시한 모든 시험의 수험표를 가지고 아웃백 매장을 방문하면 아웃백의 인기 애피타이저 '그릴드 쿠카부라윙'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벤트 혜택은 제휴할인 적용 전 주문금액 기준으로 3만원 이상 주문 때 이용 가능하다.

차이니즈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는 다음 달 12일까지 수험생을 위해 매장 별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남역점, 올림픽공원점 등 7개 매장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1인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을 제외한 성인 2인 이상 동반 때 적용된다. 같은 기간 판교 아비뉴프랑,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한 캐주얼 콘셉트의 딜라이트 매장에서는 수험표를 내면 깐풍기를 50% 할인된 가격에 맛 볼 수 있다.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더플레이스'는 오는 30일까지 수험표를 제시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화문점·강남역점 매장에서 진행하며 주문 전 수험표를 보여주면 된다. 할인은 테이블 당 1회 적용된다.

이탈리안비스트로 '스파게티아'도 30일까지 수험표 이벤트 '수능 끝! 힘 복사작'을 벌인다. 수험표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된 고객이 메인 메뉴 1가지를 주문할 경우 피자 메뉴 중 1가지를 무료로 증정한다. 테이블 당 1회만 사용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은 14일까지 수험생들을 위한 '괜찮아 잘될꺼야'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장 방문객에게 트리플컵(정가 6700원)을 9900원에 1+1으로 제공한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수험생에게 10%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카페베네 매장에서 메뉴 주문 때 수험표를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디저트부터 커피 메뉴까지 전 메뉴를 즉시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매장 내 이벤트 관련 POP 광고가 게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정해림기자 pm@metroseoul.co.kr

신라스테이 동탄, 1주년 기념 패키지

신라스테이 역삼은 프리미엄 와인 제공

호텔신라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 동탄에서 오픈 1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한 달간 베스트 아이템을 담은 'Happy 1st Birthday' 패키지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판타지'와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두 개의 축제로 에버랜드에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연인과의 로맨스를 만끽한 후 호텔에서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패키지다.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신라호텔의 맛을 담은 뷔페 레스토랑 Cafe 조식 2인 등으로 구성됐다. 스페셜특전으로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신라스테이 동탄 숙박권 1매를 제공한다.

패키지 가격은 주중 30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이다(10% 세금별도). 상품은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신라스테이 역삼은 이달 21일까지 뷔페 레스토랑 Cafe에서 주중 디너 뷔페 이용 고객에게 뷔페와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 와인 라비에이유 페름(LA VIEIL FERME) 1병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온열암' 국제 심포지엄

세계적 석학 특별 강연과 환자 적용 사례 발표

이대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온열암센터가 오는 17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온열암'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온열암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적인 온열암 치료의 대가인 안드라스 사스 헝가리 성 이스트반대학 교수와 송창원 미네소타 의대 교수 등이 특별 강연을 한다. 또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이 최신 온열암 치료 연구와 환자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병원은 2009년 온열암 치료기를 도입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온열암 치료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달콤한 아이디어'…고구마 간식 3선

찌고 굽고 튀기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되는 고구마는 추운 날씨에 즐기기 제격인 간식이다. 영양만점 고구마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겨보자.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고구마 전피자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254㎉ / 조리시간: 30분

[재료] 고구마 2개, 올리브오일 약간, 피망 1/2개, 양파 1/4개, 블랙 올리브 4개, 피자치즈 60g

[양념] 케첩·칠리소스 각 1큰술

1. 고구마를 슬라이스해 올리브오일에 앞 뒤로 굽는다.
2. 칠리소스와 케첩을 1:1 비율로 섞어 준다.
3. 피망은 링 모양으로 잘라주고 양파는 채 썰고, 검은 올리브도 링 모양으로 잘라둔다.
4. 구운 고구마 위에 ②의 소스를 펴 발라 준 뒤 잘라둔 피망, 양파, 검은 올리브를 올려준다.
5. 피자치즈를 적당히 뿌려준 뒤 미리 180℃에서 예열시킨 오븐에 10분 정도 굽는다.

◆고구마 크로켓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294㎉ / 조리시간: 30분

[재료] 고구마 4개, 양파·달걀 각 1개, 피망 1/2개, 베이컨 50g, 버터 1큰술, 밀가루·빵가루 각 약간

[양념]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고구마를 쪄 뜨거울 때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으깬다.
2. 양파, 피망과 베이컨도 잘게 다진다.
3. 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볶다가 베이컨, 피망을 넣어 같이 볶아 낸다.
4. 고구마, 양파, 베이컨을 같이 넣어 잘 섞듯이 치댄다.
5.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잡아준다.
6.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묻혀 노릇하게 튀겨낸다.

◆자색 고구마 스프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98㎉ / 조리시간: 60분

[재료] 자색고구마 500g, 우유 500㎖, 생크림 200㎖, 대파·셀러리 각 100g, 버터 50g, 육수 1ℓ, 넛맥·계핏가루 각 적당량, 식빵 1장

1. 껍질을 벗긴 자색고구마는 잘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인다.
2. 대파는 흰 부분으로만 채 썰고, 셀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가늘게 썬다.
3. 식빵은 흰 부분만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크루통을 만든다.
4.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대파와 셀러리를 넣고 볶다가 삶은 자색고구마를 넣고 더 볶은 후 육수를 붓고 약불에서 끓인다.
5. 육수가 끓어오르면 우유를 넣고 넛맥도 약간 넣는다.
6. ①이 푹 익으면 블렌더로 곱게 갈은 뒤 냄비에 끓이면서 생크림을 넣고 간을 맞춘다.
7. 끓인 수프를 그릇에 담아 계핏가루를 뿌리고 크루통을 얹어 낸다.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합니다!

한독 '세계 당뇨병의 날' 맞아 '당당발걸음' 캠페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양말을 벗으실 때면 냄새가 징그러워 멀리 도망가곤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셔서 발이 항상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였기 때문이죠. 저와 동생의 학비를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이발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인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까맣게 썩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볼 때면 어린 시절 제 모습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중학생이에요. 아빠는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뇨병이었나봐요. 아빠는 하루 종일 버스 페달을 밟고 집에 오면 발이 아프다 하세요. 당뇨병이 뭔지 잘 모르지만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 발이 더 많이 아픈가봐요.

매년 11월이 되면 한독에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당뇨병 극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사연들이 도착한다. 임신 당뇨병으로 30년을 고생하고 있는 엄마의 고통을 한 번도 덜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는 딸의 이야기, 돌봐주고 있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안쓰러워 사연을 보낸다는 어느 간호사의 편지. 이 모두 한독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인 '당당발걸음(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신 발걸음)' 캠페인에 도착한 마음들이다.

사실 한독은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처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당뇨병은 치료제 등을 이용해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환자들 스스로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은 발 보호 기능과 걸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혈당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당뇨병 환자의 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이 신발은 한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급여나눔 기금은 통해 마련된다. 더욱이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100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신발이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받고 당뇨병을 극복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정성이 모아진 선물이지만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캠페인은 23일까지 진행되며 당뇨병 환자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이웃이나 친구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독 홈페이지(www.handok.co.kr)에서 응모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16층 당당발걸음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면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Tip1 당뇨인의 발 관리법

당뇨병 환자는 평소에도 발을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 따뜻한 물과 비누로 발을 매일 닦고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없도록 잘 말려야 한다. 발톱은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잘라야 하며 공기가 잘 통하고 발에 잘 맞는 가죽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또 면이나 모로 된 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 내부를 점검해 발에 상처를 주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걷기와 스트레칭,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Tip2 당뇨인의 올바른 걷기 방법

대한걷기연맹은 당뇨병 환자가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어 식후 30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당뇨병 환자는 신체능력이 저하돼 있어 급격한 혈당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5~5.5㎞의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슴과 등을 활짝 펴고 턱을 당겨 시선은 10~15m 앞을 보는 것이 좋다. 팔은 힘을 빼고 악수하는 기분으로 흔들어주며 발은 뒤꿈치부터 40~50도 각도로 착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유통업계 '벤터테인먼트' 마케팅 활발

브랜드 이미지에 이야깃거리 더해 공감 유도

유통업계가 브랜드 이미지와 접합해 놀거리·볼거리·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벤터테인먼트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브랜드(Brand)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인 벤터테인먼트(Bentertainment)는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놀이를 통해 보다 쉽고 친근한 메시지로 전달한다. 이런 마케팅은 장기 불황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능성 언더웨어 브랜드 라쉬반은 내복에 대한 남녀의 동상이몽 속마음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가을·겨울 제품인 '뉴퍼트'의 장점을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이색 마케팅 일환으로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내복을 챙겨주는 여성과 내복 입기를 꺼려하는 남성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어 이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벤터테인먼트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이다. 최근 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가능한 브랜드 바이럴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넵튠 스탑 익스플로링' 캠페인 영상을 선보였다.

'승부욕 돋는 노스페이스 영상'으로 유튜브에 처음 공개된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바닥이 사라지고 의지할 곳은 클라이밍 월뿐인 상황이 펼쳐진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클라이밍 체험을 통한 도전과 성취를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터테인먼트 마케팅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감성'이다. 브랜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소원자판기' 영상을 제작,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영상은 '참고 채웠던 청춘,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콘셉트로 이 시대 청춘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소원 자판기를 누른 참가자들은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이동, 제한된 시간 안에 천장에 달린 소원사이다를 따는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에 성공한 참가자가 소원을 적으면 칠성사이다가 직접 이뤄주는 방식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유아동업계 캠핑족 공략

카시트 등 안전 제품부터 아이디어 상품까지

캠핑 장소로 떠나기 전 자동차 사고 위험을 대비해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다. 36개월부터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브라이텍스의 아동용 카시트 '롤머커드 픽스 SICT'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등받이 프레임 밖으로 아이의 어깨가 드러나는 일반 아동용 카시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agle-Wing 타입의 측면 보호대를 장착했다.

장시간 외출에 실용성이 높은 기저귀 가방은 필수 아이템이다. 페투니아 피클 바텀의 '선즈 오브 트레이드 대디백'은 수납공간과 다용도 케이스·파우치·기저귀 체인징 패드로 구성된 '베이비 체인징 툴'을 갖추고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짐을 덜어주는 아이디어 상품도 있다.

'캡슐형 젖병' 이지고 일회용 젖병'은 개봉 전에는 크기가 8㎝로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개봉 후에는 250㎖로 늘어나 일반 젖병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0015@

60만 수험생 겨냥…게임업계 이벤트 풍성

마비노기 영웅전

캐릭터카드 제공·아이템 선물 등 다양

"60만 수험생을 잡아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험생을 신규 이용자로 확보하려는 게임 마케팅이 치열하다. 수능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말은 게임 이용률이 상승하는 업계 대목이기도 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기 온라인 게임 '사이퍼즈'는 20일까지 1996년과 1997년에 출생한 이용자 전원에게 수험생 특별 칭호와 '배틀 오브 사이퍼즈' 캐릭터 카드를 제공한다. 또한 배틀 오브 사이퍼즈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2배 혜택을 적용하고 하루에 한번씩 달러박스와 프리미엄포인트(PP) 아이템 중 하나를 무작위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마비노기 시리즈도 대대적인 수험생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비노기'에서는 19일까지 수능 대박 기원 아이템 4종을 선물한다. 이 아이템은 수능 응원 찹쌀떡, 수능 응원 엿, 술술 잘 풀리는 휴지, 수능 대박풍선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마비노기영웅전'은 수능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능 끝! 교복은 이제 추억으로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일정 출석일수를 달성한 이용자는 교복과 구두로 구성된 '사립 로체스트 아바타'를 받는다. 20일간 출석시 아바타를 포함해 AP 학습 선물상자 아이템을 추가로 얻는다.

자동차 경주게임 '카트라이더'에서는 19일까지 '수능 끝! 쇼쇼쇼 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정 시간에 접속한 이용자는 '골드카드 기어' 아이템 2개를 받는다. 또 26일까지 엠플 이상 PC방에서 접속한 모든 이용자는 '골드카드 기어' 아이템 10개를 획득하며 그 가운데 10명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넥슨캐시 등 추가로 선물받는다.

모바일 게임도 수험생 잡기에 나섰다.

수능 끝! 카트하러 PC방 가자!
200,000원

최근 가수 강민경을 홍보모델로 발탁한 '클래시 오브 로드2'는 공식 커뮤니티에 수험표를 인증하는 이용자 전원에게 반지 100개와 소울 100개 아이템을 증정한다. '영웅의 군단'은 14일과 15일 접속자에게 '의욕회복제'와 '시즌5 플래티넘 티켓' 아이템이 포함된 '영군닥터 쿠폰'을 지급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게임박람회 '지스타 2014'에서 게임 신작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라 홍보 분위기가 뜨겁다"며 "모처럼의 계절 성수기를 맞아 신규 이용자 확보와 게임 충성도 강화를 위한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정기자

지스타 비밀병기 '로스트아크' 출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PC산업 재건하겠다"

FPS '크로스파이어'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가 3년간 공들인 MMORPG '로스트아크'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로스트아크'는 오는 20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4'의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게임이다.

스마일게이트는 13일 서울 청담동 청담 씨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일게이트 RPG에서 개발한 차세대 핵&슬래쉬 MMORPG '로스트아크'를 공개했다.

'로스트아크'는 그동안 '프로젝트 T'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게임이다. 중국 동접 500만에 달하는 '크로스파이어'의 개발력을 이어받은 스마일게이트 RPG가 3년간 공들인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스트아크'는 잃어버린 '아크'의 힘을 찾아 떠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핵&슬래쉬 MMORPG다.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된 환상적인 월드와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이 자랑거리다. 드라마틱한 연출과 역동적인 시네마틱 던전을 통해 현실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동일 공간에서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MMORPG 본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도 화려하고 호쾌한 전투 액션과 사실적인 모험 콘텐츠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회장은 "위축되고 있는 한국 PC 게임 산업을 로스트아크를 통해 다시 일으켜 보이겠다"며 "다가오는 지스타에서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지난 … 에서 열린 2014 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현장 모습. 대회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최근 시즌 개선안을 발표했다.

LoL e스포츠 리그제 도입한다

최저 연봉 2천만원 보장…1년 단위로 계약

리그제 도입과 프로게이머 최저 연봉 보장을 골자로 한 '2015 시즌 LoL e스포츠 리그 개편안'이 발표됐다.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e스포츠협회 및 온게임넷은 내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시즌 개편 최종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는 기존 토너먼트 형식에서 리그제로 변경된다. 그간 대회에 안정적으로 참가할 수 없었던 팀과 선수들의 고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개막 예정인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스프링 리그'는 풀리그 방식으로 4개월간 진행된다.

선수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최저 연봉제 2000만원을 리그 참가팀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프로팀과 계약을 맺는 모든 프로 선수는 연봉이 2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이는 스트리밍 방송을 기반으로 한 수익 상금과는 별개다.

최저 의무 계약기간도 최저 연봉제와 같은 방식으로 명문화된다. 향후 프로팀은 선수들과 최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다. 팀 의지에 의해 소속 선수를 방출하는 경우 팀은 해당 선수에게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총괄 상무는 "미래지향적인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커다란 변화를 고민하게 됐다. e스포츠 팬들과 선수들을 위한 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효정기자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주관

후원 동국제약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에볼라 선발대 출국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의료지원을 나서는 한국 보건인력 선발대장 정은규(왼쪽)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절 이유

기자 수첩
김학철 <연예스포츠부 기자>

가수 이승철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지난 9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승철은 출입국사무소에 4시간 가량 억류됐다. 당시 공항의 한 직원은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며 함께 있던 아내도 함께 불허당했다.

억류 이유로 내민 '최근 언론에 나온 이승철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 휘닿말을 지나 봄빈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승철이 8월 14일 탈북청년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한 적은 있다. 그곳에서 통일을 염원한 노래 '그날에' 등을 발표하며 독도음악회를 가졌다.

이승철이 부당한 처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일본 측은 돌연 "당신은 유명한 가수가 아니냐"며 20여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거론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마약이나 대마초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조 좋은 입국 직원이 둘러댔던 최근 의혹은 아니다.

대마초 사건 이후 이승철은 일본을 수도 없이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심지어 4월에는 폴 매카트니가 일본에서 대대적인 공연을 벌였다. 1980년 일본에 마리화나 200g을 몰래 반입하려다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그다.

일본의 '이승철 거부' 이유는 정황상 명백해 보인다. 독도 음악회에 앞서 이승철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본은 위안부와 독도에 극도로 예민한 일종의 병을 앓고 있다.

이승철은 독도음악회에서 부른 '그날에'를 무료 배포하기로 결정, 음원 수익 전부를 독도 평화와 관련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병은 치료해야 한다. 만만한 연예인을 상대로 한 치졸한 보복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뉴스&뉴스

'군인복무법' 제정… 영내 폭행죄 신설

●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형법이 개정된다.

13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우선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野 전대룰, 대표·최고위원 분리 유지

● 새정치민주연합 임시 지도부가 13일 당대표에게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성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대준비위는 당헌·당규를 손대지 말고 안정감 있게 예측 가능한 경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별도 경선으로 뽑는 현행 투트랙 분리 선거를 유지하자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대법관 절반, 非판사 출신 임용방안 추진

● 법관 제도의 폐쇄성 개선을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

여·야·정 협의체 축산업계 피해 대책 합의서 서명

국회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 업계 피해 대책 내용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 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제약된 축산계열화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 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 매년 사료 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국산 우유 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안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한·태국 정상 악수 박근혜 대통령과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13일 오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법안 제출

사실상 당론 발의…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의원만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 조현룡 의원만 서명에서 빠졌고, 공기업개혁 법안도 두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헌주 의원까지 4명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

먼저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국어 1교시는 지옥 같았다"

인문계 국어B·사탐에서 당락 갈릴 듯

"1교시는 마치 지옥 같았다."

13일 시행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나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같은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밝힌 수능출제본부의 말과는 달리 국어는 A/B형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서울 종로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인문계 한 여학생은 "비문학에서 나온 과학 관련 지문이 너무 길고 어려웠고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울상을 지었다.

모의평가에서 평균 1~2등급을 받는다는 인문계 수험생은 "국어 B형은 6·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매우 어려웠다"며 "특히 문학 지문의 생소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문제가 까다로워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이사는 "국어 B형은 만점자가 0.1%로 추정된다"며 "2012학년도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수학 A형과 영어 영역은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다.

한 인문계 여학생은 "수학은 너무 쉬워서 시험 시간이 남은 학생들도 있었다"며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크게 내려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어 1~2등급이라는 한 여학생도 "영어의 경우 익숙한 지문이 많았고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쉬운 편이어서 등급 커트라인이 높을 것 같다"며 "한 문제 틀리고 맞는 것에 따라 등급이 변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사회탐구는 모의평가보다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 과학탐구는 비슷하거나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는 "인문계는 수학이 쉽고 영어는 더 쉬웠기 때문에 국어B와 사탐이, 자연계는 수학B와 과탐에서 변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메트로 수능특별판 배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앞에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던 수험생들이 메트로 수능 특별판에 실린 답안지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10년 8개월 만에 '혜성 정복'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 착륙…인류 역사 쾌거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에 착륙했다. 10년 8개월 만에 거둔 쾌거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 관제센터는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래'가 12일 오후(세계 표준시 기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밝혔다.

'혜성 정복'은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다. 앞서 2005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은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돌체를 혜성 템펠 1호에 충돌하는 실험을 했다. 혜성 표면에 탐사 로봇은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67P는 지구에서 5억1000만㎞ 떨어져 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태양계 진화 역사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7P는 고무 오리 장난감처럼 2개의 큰 덩이가 연결된 모습이어서 '오리 혜성'으로도 불린다.

로제타호의 이름은 이집트 '로제타석'에서, 필래는 이집트 나일강 지역의 '필래 오벨리스크'에서 따왔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됐던 로제타와 필래처럼 혜성 탐사를 통해 태양계의 비밀을 밝히려는 인류의 열망이 담겨 있다.

한편 유럽우주국은 로제타 프로젝트에 총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를 투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서울 '8길 8색' 둘레길 157km 완성

서울의 산과 하천을 따라 역사·문화·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총 길이 157㎞의 '서울둘레길'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 2011년 조성을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시는 시 외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8개 코스 총 157㎞의 서울둘레길을 모두 연결해 15일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8개 코스는 ▲수락·불암산(18.6km, 6시간 30분) ▲용마산(12.6km, 5시간 10분) ▲고덕·일자산(26.1km, 9시간) ▲대모·우면산(17.9km, 8시간) ▲관악산(12.7km, 5시간 50분) ▲안양천(18km, 4시간 30분) ▲봉산·앵봉산(16.6km, 6시간 10분) ▲북한산(34.5km, 17시간)이다.

코스마다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도심 속 삼림욕을 즐기고 싶다면 관악산코스와 대모·우면산 코스, 경치를 보고 싶으면 용마·아차산 코스를 선택하라고 시는 추천했다.

/이장우기자 cyclone@

수시모집 논술·구술면접 대비하도록

대학별 고사는 교과 과정 이해도 중요

지난 13일 실시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본격적으로 대학입학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수능 점수가 평소보다 잘 나왔으면 정시모집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다. 하지만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의 대학별 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 대학별 논술고사는 15일부터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 등을 시작으로 실시된다. 교과과정에서 나온 지식을 현실에 응용·적용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숙지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인문계열의 논술고사는 최근 수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함께 영어와 자연계열 제시문을 활용하는 등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계열은 수학 문항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학 문항은 본인이 선택한 교과를 중심으로 응용력을 평가하는 추세다.

구술면접은 15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단계별 전형에서 대학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반영되는 만큼 면접 유형과 주요 평가요소를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기본면접은 인성·가치관·사회성·리더십·기본 소양 등을 평가하는데 대학이나 계열 간에 비슷한 주제의 문항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 인문계열은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전공과 관련된 고교 교과 지식의 이해도와 해당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평가한다. 자연계열 심층면접은 수학·과학 교과 과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대학이나 전공별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분석하고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hsjung0404@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3일 쌍용자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선옥기자 ysl1800@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France

Construire des toilettes dans Maintenant, c'est possible !

부엌과 거실에도 화장실 설치

프랑스에서 부엌과 거실에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건축 주거법이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수정된 건축 주거법에 따라 부엌이나 거실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주거부 장관 실비아 피넬은 건축 주거법이 수정된 사실을 발표했다. 개정 이전 화장실은 부엌이나 거실과 분리돼야 했다. 새로운 건축 주거법에선 건축가가 새 건물을 지을 때 거실이나 부엌에도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metro Brazil

Porto Alegre e nove capitais

뎅기열 확산… 보건 당국 비상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브라질이 뎅기열 공포에 휩싸였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1453개 조사 대상 도시 중 117개 도시가 뎅기열로 인한 고위험 상황으로, 533개 도시는 경고 수준으로 분류됐다. 특히 뎅기열 고위험 도시 중 9개 도시는 확진 비율이 높은 북동부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부 관계자는 "여름에는 100가구 중 1가구까지도 뎅기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혼외정사 정리하는 '이별 파티'

20대 여성, 웨딩드레스 입고 11세 연상 유부남과 감정 정리 행사

최근 중국 원저우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혼외정사를 정리하는 '이별 파티'다.

며칠 전 더우더우(가명)는 이벤트 회사에 연락해 '이별식'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벤트 회사 직원은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를 장소로 잡았다. 직원은 더우더우가 불치병에 걸려 이별을 해야하는 시점이 왔을 것으로 추측했다.

10일 오후 3시 15분 파티의 여자 주인공인 더우더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카페에 나타났다. 남자 주인공도 다른 입구로 들어와 주례대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친구 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지를 교환하고, 샴페인을 따르고, 케이크를 잘랐다.

더우더우는 "남자친구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됐고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바람을 이루고 싶었다"고 이별식을 연 이유를 밝혔다.

원저우에 사는 20대 더우더우는 자신보다 열한 살 많은 남자를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장사 출신인 남자는 일을 하러 원저우에 온 상황이었다.

더우더우는 "처음 만날 때는 그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부남인 걸 알고 나서 화를 냈지만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뒤였다"고 했다.

남자는 여러 번 결혼을 약속했고 멀리 고향에 있는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더우더우의 가족도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불륜은 꽤 오래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남자의 아내가 눈치를 채면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하기로 결정했다.

더우더우는 이별 파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풍선이며 노래며 모두 직접 골랐다. 남자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현장에 와서야 상황을 알았다.

이별 파티를 마친 더우더우는 베이징으로 가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계획이다. 더우더우는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잘 생활하자는 의미에서 이별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Гаишники любят полосатую колбас

흑백 줄무늬 넣은 '경찰 소시지' 인기

러시아 시베리아 추랄 지역 경찰 공무원의 생일이나 승진 축하 등 기념 파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찰 소시지'가 화제다.

흑백 줄무늬가 인상적인 이 소시지는 경찰서 주변 소시지 전문점 '타브리아'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아이디어 상품이다.

타브리아의 홍보담당 밀라나 로디오노바는 "삼 년 전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이 소시지를 만들었다"며 "소시지 겉면에 인공색소로 경찰을 상징하는 흑백 줄무늬를 칠했다.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긴 소시지는 경찰봉 모양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소시지는 훈제 소시지의 일종인 세르벨라 소시지로 만들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고 타브리아만의 향신료로 맛을 냈다.

로디오노바는 "경찰 소시지는 그윽한 훈제 향과 깊은 맛으로 지역 경찰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경찰서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소시지가 동이 난다"고 덧붙였다.

타브리아의 줄무늬 소시지는 경찰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도 즐겨 찾는 유명 음식이 됐다.

로디오노바는 "경찰 소시지를 먹어보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온다"며 "하지만 경찰은 우리 가게의 영원한 VIP 고객"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소시지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달 준비를 한다"며 "우리 소시지를 유명하게 만들어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하다. 경찰과 경찰 소시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하람 내셔널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700 주파수 지상파·이통사 '치고 받기'

국민은 관심 없는데 일방적인 여론몰이

"도대체 700MHz 주파수가 뭐길래 TV에서 매번 거론되죠?"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놓고 각종 언론에서 매일 같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멀다. 단지 700MHz 주파수 할당을 놓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간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따름이다.

정부가 이번에 나눈 700MHz 대역은 지난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위해 활용되던 주파수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을 전면 종료하면서 이 주파수 대역을 회수했다.

여후 정부는 해당 대역의 활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해야 공익성, 공공성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을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회수한 700MHz 대역에서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68MHz 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따라 분담되면서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졌다. 현 미래부는 통신에, 현 방통위는 방송에 주파수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상파는 700MHz 주파수 할당을 유리한 양상으로 이끌기 위해 여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MBC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 관련 공청회를 생중계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정치권에서는 '지상파 편들기' 양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감안해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서는 700MHz 대역을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은 시장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700MHz 대역의 지상파 우선 배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트래픽으로 인한 대대적인 통신장애 발생 후에야 대책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요를 수용하고 국제적 조화가 가능하다"며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용 할당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의 관심과는 먼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지상파의 지나친 여론몰이가 전파 낭비라고 주장한다. 지상파가 국민들의 관심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카메라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자사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공공성, 공익성을 갖춰야 할 지상파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사안을 이렇게까지 크게 다루는 것이 옳바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경총 "명퇴 활용해야"

제도 운영 지침 발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면 승진 정체 완화와 신규채용 확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사회를 열고 경총 명예퇴직 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은 승진 정체 완화와 더불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추가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명예퇴직제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 질 경우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적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명퇴를 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경로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전직지원서비스가 명퇴를 시행할 때 노사간 대립을 완화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침은 정년 60세 의무화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최근 노동관련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인력운용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업이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정년제, 경영상 해고, 명퇴 세 가지다. 하지만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으로 정년제를 쓰기가 어렵고 해고는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백소혼기자 [illegible]

'삼성 개발자회의 2014' 개최 삼성전자는 11~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회의 2014'를 개최하고, 신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를 소개했다. 사진은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 사장의 기조강연 모습. /삼성전자제공

내달 아파트 입주량, 작년 절반수준

전세난 악몽 재현 우려

오는 12월 전국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1만70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연말·연초 전세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114가 집계한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3% 줄어든 1만7764가구다. 이는 11월 입주량보다 30.1% 감소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공급된 12월 평균 물량(2만9597가구)과 비교해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또 내년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모두 10만8344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7.1% 줄어든 물량으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입주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어달보다 35.1% 감소한 7010가구, 지방에서 26.5% 줄어든 1만75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수도권에서는 총 701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은 '아크로힐스논현' 368가구, '철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295가구 등 총 108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5921가구로 전국에서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 625가구 외 별내지구 752가구, 미사지구 1551가구, 옥정지구 962가구, 창남지구 1248가구 등 공공물량이 입주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방은 1만754가구로 전월(1만4627가구)대비 3873가구 감소된 물량이 공급된다. 부산의 입주물량은 '부산사감으로부영3.5차' 2387가구, '해운대더샵센텀누리' 375가구 등 3353가구로 지방 입주물량 중 31.2%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남에서는 '힐스테이트3차' 630가구, '창원북면STX칸1.2단지' 1088가구 등 총 2322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두현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60.51	547.70	2.21	1098.30
(+0.76)	(+1.24)	(+0.01)	(+6.80)

크리스마스의 열쇠 갤러리아명품관은 13일 '크리스마스의 열쇠' 플라리아 틀 테마로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 건관에 선보였다. /갤러리아 제공

HP 멕 휘트먼CEO 방한

멕 휘트먼(사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가 13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만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휘트먼 HP CEO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HP 창사 30주년을 맞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4일까지 이틀간 한국에 머물면서 국내 기업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휘트먼 CEO는 방한 첫 날인 13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을 하고 14일에는 SK하이닉스 측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P는 SK하이닉스로부터 PC와 클라우드 컴퓨터용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등)를 공급받고 있다. 또 KT,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사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HP는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기자 ysw@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illegible] 남궁호
[illegible]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illegible]

삼성전자 주가변동 따라 연 10.8% 주는 ELD 출시 NH농협은행은 13일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예금 14-1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판매되는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할 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자산 변동률에 따라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농협은행 제공

교보, 우리銀 인수 참가 잘될까?

18일 결정 … 자금조달·경쟁사 변수 등 걸림돌

그동안 우리은행 인수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교보생명이 내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과 경쟁사 등 변수가 많아 인수에 성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입찰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수익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교보증권 등 현재 6개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교보가 지난 3월 말 기준 총 자산 241조에 달하는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총 자산 300조원의 5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이번 이사회에서 인수전에 참가할 뜻을 밝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수까지는 '암초'가 적지 않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인수자금 확보다.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시가 기준 2조5000억원가량이지만 교보생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경영권(30%) 지분 매각일인 오는 28일까지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FI)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FI는 일본 SBI그룹, 프랑스 악사(AXA)그룹, 국내 한국투자금융 등이다.

최근 인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그룹도 교보생명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손녀사위가 회장인 안방보험은 최근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국내 증권사에 인수 시 투자자문을 요청하는 등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안방보험은 지난달 뉴욕 맨하튼의 랜드마크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고 벨기에 FIDEA 보험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 우리은행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

혹여나 안방보험이 인수전에 참가하지 않고 더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는 불가능하다. 경쟁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10년부터 정부가 우리은행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입찰 유효경쟁이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인수에 매번 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었지만 매번 유효경쟁이 무산됐었다"며 "교보생명이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수전에 참가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인수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

삼성SDS… 오늘 상장 거래

증권업계 목표가 41만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SDS 주권이 14일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신규 상장을 신청한 지난 10일 현재 삼성전자(22.6%) 등 9명이 총 6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삼성SDS는 컴퓨터시스템 통합과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한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7조8468억원, 당기순이익 3260억원이다.

삼성SDS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인 19만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삼성SDS가 상장할 주식 수는 보통주 7737만7800주다.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공모가의 갑절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이달 들어 국내 증권사 6곳이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제시했고,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치는 41만원이었다.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이 증권사는 삼성SDS의 주가가 5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낙관했다.

신영증권은 46만원, 우리투자증권은 44만원으로 40만원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동부투자증권(36만원)과 유진투자증권·KTB투자증권(35만원)은 35만원 언팎으로 삼성SDS 목표주가를 내다봤다.

이들 6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SDS 목표주가 평균치는 41만원. 이는 공모가인 19만원보다 115.8% 높고, 삼성SDS의 전날 장외가격 종가(36만6000원)를 12.0% 웃도는 수준이다.

증권가가 삼성SDS의 주가 전망을 낙관하는 주된 이유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때문이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신한銀, 산업단지 우수고객초청 세미나 신한은행은 13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산업단지 우수고객을 초청해 '2015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오찬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진원 은행장(앞쪽)이 인천 남동구 소재 ㈜대청스틸을 방문해 주요 생산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외환銀, 위폐 7만 달러 적발

외환은행은 13일 올 상반기 6만7538달러에 달하는 위조지폐를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적발한 위폐는 모두 539매로 미화 455매, 위안화 33매, 유로화 3매 등이다. 이는 지난해 487매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국내 전체은행의 위폐 적발 매수(652매)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012년 9월 국내은행 최초로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위조지폐 감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난해 위폐 대응분야 최고 권위자를 센터장으로 영입하는 한편 지난 5월 화폐전시관과 위폐분석실을 일반에 공개하고 전문인력과 기자재를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구 월배역 지점에서 중고차 수출상으로부터 건너 받은 미화 2만불(100불권 200매) 중 위폐로 의심되는 화폐를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신속히 특삼판독 후 위폐로 판정, 대상물 전량 회수와 소지인을 현장 검거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영업부에서도 한번 과거대 후원회장이라는 고객이 제시한 엔화 5만엔을 위변조대응센터 감정의뢰 후 위폐로 확인, 소지인을 현장 검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부산세관으로부터 위폐로 추정되는 미화 100불권 297매(한화 3000만원 상당)에 대한 전위여부 감정을 요청 받아 위폐 반입 용의자와 운반책 등 2명을 입건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노력으로 외환은행은 현재 금융권 최고 수준의 위폐 적발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illegible]

한은, 기준금리 연 2.0%로 '동결'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0%로 동결키로 했다.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채권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0%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들은 "한은이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당분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이달엔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전달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로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로 상승했지만 당장 이번 금통위에서는 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연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올해만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금통위가 이후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전례가 없었다.

공동락 현대투자증권 연구원도 "직접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라도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구두개입 차원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면서 "내년 1분기 중에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단비기자 [illegible]

SCREEN
영화의
발견
SCREEN
Weekly Magazine
매주 토요일 낮 12시 본 방송
에네스 카야 | 영화 방송인
tcast
SCREEN
FOX
FX

후강퉁 17일 시행 "본토 유망주를 잡아라"

증권사, 소비·고배당주 등 추천… 투자 유의사항 체크해야

개인투자자도 중국 본토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후강퉁' 시행이 섬큼 다가오면서 투자방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17일 시행이 확정된 후강퉁은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후구퉁'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구퉁'으로 나뉜다.

국내 투자자는 기존에도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홍콩을 거쳐 상하이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에 기대감이 쏠렸다.

중국 본토 A주의 568개 종목에 대한 투자 길이 열렸다. 이는 전체 상장종목 965개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개수이며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90%에 달한다.

증권사들도 유망주 찾기에 분주하다.

증시 전문가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비주, 높은 배당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 후강퉁 시행 자체의 수혜를 기대할 만한 증권주 등에 주목했다.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은 유제품 1위 업체인 네이멍구이리를 공통적으로 추천했다. 유제품 업종이 다른 소비재보다 성장세가 빠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현대증권은 현지 3대 화장품업체인 상하이지와, KDB대우증권은 증류주 업체 구이저우마오타이, 의약품 업체 톈스리, 캉위안제약, 여행사 중국국제여행, 백색가전 업체 칭다오하이얼을, 현대증권은 IT 기업 텐센트를 유망하다고 봤다.

현지 고배당 종목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상하이자동차, 화위자동차, 유통버스 등을 제시했다. 대우증권은 배당률이 높은 동시에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가 선호하는 종목으로 화샤은행, 난징은행, 상하이자 다진철도, 상하이제약을 꼽았다.

투자 유의사항을 보면 후강퉁을 통해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려면 일단 후강퉁 거래체제를 갖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 증권매매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A주 거래화폐가 위안화이므로 증권사 환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안화도 마련해야 한다. 홍콩금융당국이 후강퉁 시행 시기에 맞춰 17일 위안화 환전 한도(일일 2만위안)를 없앨 계획이므로 환전 문제로 투자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

그외에는 다른 해외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업점 등을 통해 원하는 종목의 시세를 조회한 뒤 매매주문을 내면 된다.

후강퉁의 거래시간이 국내 증시와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하이거래소는 크게 오전장(한국시각 기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휴장(12시 30분~오후 2시), 오후장(오후 2~4시)으로 나뉜다.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둘 중 한 곳이 휴장하면 국내 투자자는 A주를 거래할 수 없다. 또 두 거래소가 모두 개장했더라도 다음날이 홍콩 휴일인 경우에도 A주를 매매할 수 없다.

상하이거래소에서 당일 주식을 매수해 그날 파는 일중매매 거래는 할 수 없다.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불가하다.

지정가 주문만 낼 수 있으며 정정주문은 할 수 없고 취소주문만 가능하다.

하루 상하한가폭은 ±10%로 제한된다. 매수 단위는 100주이며 팔 때는 단주로 처분할 수 있지만 100주 미만일 때는 분할 매도할 수 없다. 하루에 순매수 가능 금액은 130억 위안(약 2조3000억원)으로 제한된다.

/김보미기자 bjjdms@metroseoul.co.kr

대신증권, 연 4% RP 특별 판매

대신증권이 펀드와 채권 등 자산을 이동해 온 기존 고객에게 연 3.7%~4% 금리를 적용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를 오는 17일부터 선착순 특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RP특판은 신규 개인 고객과 타사에서 자산을 이동해 온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 대신증권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자산을 이동해오면 3개월 만기 특판 RP를 연 4%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자산은 펀드와 ELS, 채권, 연금저축 상품이다.

이동해온 자산금액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타사에 보유한 연금저축 1000만원을 대신증권으로 옮겨오면 연 4%의 RP상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가능하다.

신규 개인고객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연 3.7%에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규고객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

놀이공원 콘서트 관람이 공짜? 롯데카드는 13일 카드 회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제10회 프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롯데카드 회원과 소외계층 등 모두 2만4000여명을 롯데월드로 초청해 진행된다. 초청된 회원들은 롯데월드의 모든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롯데카드 제공

개인투자자 위한 토요 특강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고객교육센터 투자자 토요 특강'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김권진 온스탁골 저자가 강사로 나서 '나만의 매매스윙 만들기'를 주제로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과 매매기술을 강의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국내銀 9월 말 BIS 비율 14.2% '양호'

국내은행의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9월말 국내은행의 BIS자본비율 현황 및 감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6월말 보다 각각 0.05%p, 0.03%p, 0.03%p 상승한 14.23%, 11.71%, 11.34%로 집계됐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 3분기 중 총자본비율이 상승한데는 원화대출금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14조원 오른 것(1.12%) 것보다 자기자본이 더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총자본비율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이 12.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이 13.75%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이 11.0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자본비율도 지난 분기 보다 소폭 상승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권 구조개편과 일부 기업여신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은행의 올해 말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지주사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16년부터는 바젤 Ⅲ 추가자본 부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은행의 경우 D-SIB 추가자본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별 자본비율 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6년부터는 BIS 규제수준이 순차적으로 상향돼 2019년 최대 15.5%의 규제수준을 은행들이 충족해야 한다. /박우진기자

조선업계 내년 장밋빛 전망 '솔솔'

'셰일가스 붐' LNG선 불황타개 선도…해양 플랜트도 발주물량 늘듯

올해 적자의 늪에 빠졌던 국내 조선업계가 불황을 딛고 내년 '턴 어라운드'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 김현 애널리스트가 '2015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상선시장은 올해 2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 등으로 발주 물량이 올해보다 15% 가량 증가한 1억3200만t으로 예상됐다. 조선업계 최대 호황이었던 2007년 발주 물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해 충격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해양플랜트 시장 역시 올해에는 에너지기업들의 투자 위축, 유상자원 개발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어려웠지만, 내년 미국·유럽·중동·중국간의 에너지 경쟁으로 LNG 교역량과 생산설비 증가로 시장규모가 3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을 가능하게 한 중요 요인은 '셰일가스 붐'을 기반으로 한 LNG다.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한 미국은 내년 천연가스 생산량이 24.6Tcf(조입방피트), 원유 생산량이 일산 90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매년 9Bcf(연산 7312만t)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NG 교역량을 기준으로 일본 40%, 한국 30%, 중국 10%, 유로존이 20%의 LNG를 구매한다고 봤을 때 내년 LNG선 신규 수요는 160척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의 경우도 최근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활발한 물류 교류가 예상돼 발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업계별로 보면 올해 2~3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현재 임원의 31%를 구조조정하고, 조직 통폐합, 연봉제 도입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UAE 석유국영회사와 2조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터 선가 상승기였던 2013년 하반기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돼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LNG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이미 20여 척의 LNG선을 수주하며 조선업계의 부진 속에서 나홀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흑자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LNG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통해 해양 플랜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김현 애널리스트는 "유가와 환율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내년에는 선박과 해양 모두 긴 불황을 벗어날 전망"이라며 "국내 업계의 주력선종인 LNG가 부진 탈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아자동차는 한국생활안전연합과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엔지(Enzy)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을 실시한다. /기아차 제공

동남아 해외물류 유통업이 주도

제조업 불황 영향…1년 새 비중 2.6배 증가

제조업이 주도해온 해외 물류 흐름이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 유통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해외진출 물류기업 현황 및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화주 비중이 제조업 72.3%, 유통업 22.7%로 2012년보다 유통업계 비중이 2.6배 이상 늘어났다.

2년 전 화주 비중은 제조업 90.6%, 유통업 8.7%로 물류 거래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졌다.

이는 국내 물류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유통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소매시장 매출액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1.1%씩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은 물류업계가 제조업계의 수출입 및 부품조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주력했으나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대형마트, 인터넷, 홈쇼핑 등을 비롯한 유통업 화주의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물류기업의 유통업체 거래비중 상승은 현지 시장의 경영환경 변화와도 맞물린다. 현지 시장서 겪는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40.4%)을 가장 많이 꼽을 만큼 제조업 일변도의 거래선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상의는 "세계 경기침체로 제조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물류업계들도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경기의 더딘 회복세에 비해 소매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물류기업들은 유통시장을 통한 물동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물류기업들은 '현지 협력업체 확보 및 파트너십 구축'(23.6%), '관련 법·세제 등 전문지식 부족'(9.4%), '지역전문가 및 국제 물류전문인력 부족'(7.9%)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옥기자 zan@

삼성·소니 등 체험행사 마케팅

삼성전자와 소니 등이 자사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카메라 NX미니와 제주신라호텔이 함께 낭만적인 겨울 여행을 선사하는 '윈터 데이즈 서머 나잇'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신라호텔로의 초대 시즌 3번째를 맞아 특별히 삼성 스마트 카메라 NX미니와 함께 체험단을 모집하고, 제주도로 떠나는 환상적인 겨울 여행을 제공한다.

체험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제주신라호텔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를 본인의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등)에 공유한 후, 해당 공유 페이지의 URL과 함께 제주신라로 겨울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은 사람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소니도 제주항공, 사이판 PIC, 마리아나 관광청과 함께 블로거 체험 관광 프로그램인 '사이판 익스트림 원정대'를 진행한다.

사이판 익스트림 원정대는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인천-사이판 노선을 통해 사이판 현지로 이동하여 3박 4일간 소니 액션캠 미니 'HDR-AZ1(이하 AZ1)'과 함께 PIC 사이판 리조트와 티니안 다이너스티 호텔의 최고급 서비스 체험을 한다. 또 마나가하, 티니안 등 마리아나의 주요 섬들을 방문하고, 윈드서핑이나 ATV 등 익스트림 스포츠가 포함된 다양한 미션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김아름기자 yowill

삼성 NX 미니

박중흠 사장, 자사주 장내 매수

삼성엔지니어링은 박중흠 사장이 2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346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주당 매수가격은 6만1359원이다. 이로써 박 사장의 보유 주식은 8000주(0.02%)로 늘었다.

박 사장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 2억6700만원을 들여 46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지난 9월17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을 앞두고 양사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중장기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에 최고경영자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은 다음 달 1일 공식 합병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KT 르완다 LTE 상용서비스 KT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현지 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KT 제공

이통사, 위약금 제도 개선 선언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단말기 위약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이번에 개선되는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이미 지난 12일 KT가 본격 시행한 '순액 요금제'나 SK텔레콤이 13일 발표한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에 대한 전면 폐지가 이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아래 이뤄졌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KT가 이번에 선보인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 비슷한 형태로 위약금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의 경우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사로써도 보조금만 받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뒤 계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 방지를 위해 이 부분은 당장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위약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레이싱 DNA' 뽐낸다

시승기

쉐보레 아베오 RS

8년 공들인 한국GM 결과물 공개

국내 최초의 완성차업체 레이싱팀 CJ슈퍼레이스 통산 6회 종합우승, 3년 연속 '올해의 드라이버' 배출.

이는 한국GM이 만든 쉐보레 레이싱팀이 이뤄낸 성과다. 지난 2007년 척박한 국내 모터스포츠 환경에서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레이싱팀을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투자한 결실을 맺었다.

한국GM이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쉐보레 터보 트랙데이'를 열었다. 한국GM이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자동차 서킷에서 행사를 여는 건 지난 2008년 이후 6년여만이다. 6년전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 사이에 스피드웨이는 트랙공사를 거쳐 4.346km의 길이로 확장됐다. 스피드웨이는 재오픈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의 수입차 브랜드 행사만 허락했다. 그러나 한국GM이 국내 업체로 최초로 벽을 허물었다.

이날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 경주차와 아베오 RS, 트랙스 등 3대의 터보 모델을 전시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최근 2015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아베오 RS였다. 아베오는 2015년형으로 전환하며 전 라인업을 터보 모델로 재편했고, 이날 선보인 RS는 댐퍼 튜닝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차체 높이를 10mm 낮춘 모델이다.

터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순간 가속력으로 이를 테스트하기에 트랙은 최적의 장소다. 기자는 수십 명의 참가 인원 중 A조에 속해 레이싱 드라이버가 모는 '택시 드라이빙'을 먼저 경험했다. 기자를 태운 이는 탤런트 겸 레이서 안재모 씨였다. CJ 슈퍼레이스에 출전 중인 그는 능숙한 솜씨로 아베오 RS의 '맛'을 시식하게 해줬다.

이번에는 기자는 아베오 RS의 맛을 직접 느껴볼 차례. 자동과 수동 모델을 번갈아 타봤다. 이날 수동 모델은 한대만 준비됐기 때문에 이 차를 타려는 기자들의 '쟁탈전'이 치열했다. 자동 모델은 이전에 일반 도로에서 타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수동모드의 활용법은 트랙에서 아쉽게 느껴졌다. 수동으로 조작하려면 변속레버를 D(드라이브) 모드 아래에 있는 M(수동) 모드로 옮긴 후, 레버 왼쪽에 달린 +, - 버튼을 이용해 시프트 업다운을 시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패들 시프트 방식에 비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반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트랙에서는 주행성능을 100% 느끼기 힘들다.

반면 수동 모델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rpm 허용치가 높아 저단 기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터보 랙을 최소화하면서 코너를 빠르게 공략하는 게 가능했다. 경주를 위해 튜닝한 차가 아닌 일반 시판차로서 이 정도 재미를 주는 차는 흔치 않다.

이어 한국GM은 전문 레이싱 드라이버를 동원해 스포츠카 '카마로'의 드리프트 주행을 선보였다. 카마로는 특유의 스포츠카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트랙을 달궜다. 카마로가 지나간 자리는 타이어가 타며 내뿜은 하얀 연기로 가득했고, 그 사이를 지나는 기자들은 그 옛날 소독차를 따라가던 '희열'을 느꼈다.

이어서 이날 행사의 마지막 코너인 짐카나 챌린지가 시작됐다. 이는 폐쇄된 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해 복잡한 코스를 설정, 가장 빠른 시간에 코스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다. 가장 짧은 시간에 드라이버의 실력이 드러나는 경기이기도 하다.

아베오 RS는 트랙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차다. 차를 좋아하는 이라면 반드시 수동 모델로 즐길 것을 권한다.

/정의혁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국GM '쉐보레 터보 트랙데이'에서 차량주행 모습 /한국GM 제공

효성,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효성이 운영하는 세빛섬에서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 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인류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구촌 곳곳의 풍경을 담은 사진 47점이 전시된다. 테마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자연의 모습을 담은 '더워지는 지구'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담은 '위기의 생태계' ▲아름다운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 속 세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진속 세상'은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워지는 지구'와 '위기의 생태계'의 사진과 대비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세빛섬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숨겨진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세빛섬에서 생태계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려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전시 기간 중 휴일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학균기자 ksc08@

KCT '천사시리즈' 요금제 출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최대 78% 저렴한 기본료의 천사시리즈 요금제를 13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천사시리즈 요금제는 '음성천사'와 '데이터천사' 2종이다.

음성천사 요금제는 월 기본료 3004원에 음성 25분을 기본 제공해 수신 위주의 음성통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데이터천사 요금제는 월 기본료 5004원에 음성 15분, 데이터 200MB를 기본 제공한다. 카카오톡 등 일부 SNS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에게 최적인 상품이다.

음성천사와 데이터천사 요금 모두 기존 이통 3사 대비 78% 저렴하다. 해당 요금제는 의무약정기간이 없으며, 이달 중 가입할 경우 6개월 이상 사용조건으로 가입비(2만4000원)가 면제된다. 또 단말기 구매가 필요 없는 유심(USIM) 전용상품으로 서비스 가입 후 배송 받은 유심을 단말기에 넣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호식 KCT MVNO사업팀장은 "KCT는 고객 관점에서 실속 있는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의 통신요금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디자인 그 너머

권기봉의 **도시산책** <102>

서울 남산 자락의 소월길을 지나다 보면 재미있게 생긴 시내버스 정류장에 놀라곤 한다. 지난 2011년 말 서울시가 '아트 쉘터(Art Shelter)'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사업의 결과로, 모두 5개의 버스정류장이 예쁘고 산뜻하게 바뀌었다. 특히 정류소 이름판은 143명의 시민이 참여해 28.6대 1의 경쟁률 끝에 선정된 손글씨 작품들이어서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했다는 메시지도 엿보인다.

먼저 남산도서관 앞 정류장인 최순용 작가의 '회화적 몽타주'의 경우엔 정류장 자체를 미완의 캔버스 개념으로 설치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학생과 버스를 기다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등 도서관을 오가는 사람들을 조형 요소로 설정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서있는 곳의 의미를 그 겉모습에 녹여냈다. 후암약수터 입구에 설치된 주동진 작가의 '남산의 생태'는 서울에서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그 근처에서 발견된 보증 개구리를 그려넣었다. 보성여자중고등학교 근처 정류장에는 조각가 김재영이 옛 다이얼식 텔레비전을 형상화한 작품 '뿌식 이 서있다.

하지만 디자인 요소만을 앞세운 나머지 정작 버스정류장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는 건 아니다. 하얏트호텔 앞에 있는 김현근과 일본작가 스가타 고의 공동작품 '쉼표 + 또 다른 여정 여라는 이름의 정류장이 대표적이다. 김소월의 시 <가는 길>에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이라는 시구에서 나타나는 고민과 갈등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정작 비나 눈은 막아주지 못하게끔 설계돼 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서울시에 나아가 한국의 거리 공공디자인에 있어 한발짝 나아간 변화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디자인과 시민의 삶이 좀더 유기적으로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게끔 좀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가 기능적으로 유용하면서 외양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에 나섰다.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그 거리를 걷는 이들이 진심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본다. /디자인,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1/14 金 일출 07:10 일몰 17: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2.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치질 환자들은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좌욕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좌욕은 통증 완화와 소독 효과도 갖고 있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설렁설렁 공부하는 딸 걱정됩니다
교육전공 택하고 결혼도 순탄할듯

Q

큰딸이 여자 98년 10월 23일 10시

고등학생인 저의 딸이 공부의 필요성을 통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집중해서 파고들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라 걱정입니다. 공부는 중간정도의 성적은 되는데 부모로서는 더욱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지만 본인은 별로 긴박감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주팔자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으나 어느 방향으로 전공을 해야 어디서 사회생활에 애로가 없겠는지요. 공부에 철이 언제쯤 들겠습니까? 좋은 교육계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 노릇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 걱정입니다.

A

젊어서는 학력에 치우쳐 자족하지만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는 조건 좋고 외모에 여타 이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 관심사가 되다가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는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라느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랄 때 부모님의 뒷받침과 등살에 떠밀려 불만이 많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서면 자기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들의 학력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들어갔느냐에 친구들의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축 처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사주에 문창을 지니고 태어나면 시키지 않아도 공부에 욕심을 냅니다. 문창이 있고 학구적인 성과가 좋은 경우에 대학입시에서 빛을 보며 학업성취가 발현되어 지도관달 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문창성이 있다 해서 그 삶이 반드시 이력을 보장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복덕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인성과 덕성이 바탕이 됩니다. 훌륭한 인성과 덕성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혹여 문창성의 복은 못 받아서 높은 학력은 못 갖출지 몰라도 자손 출성의 복전은 쉬종 클구인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해가 갈수록 자식들에 대하여 공부 집착은 심해진다고도 보는데 다행히 사주조상자리에서 복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성적은 아니라할지라도 교육계는 무난하게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 언론 계통으로 진출하여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음식 솜씨가 좋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자와 인연이 있어 성혼에 이롭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둥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8			4	
			5			7		3
						8		
				5	1			
7		4	3		9	5		6
			8	4				
		3						
4		1			7			
	6			1	8	3		5

	6					8	7	
	1		2					
	8			7	3			
		8			4			1
		7	5		1	3		
9			3			2		
			8	1			5	
					6		4	
	7	5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현사 스도쿠 프리미어 (저자 고든 프렛크 롤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1월 14일 (음 9월 2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60년생** 가족이 한 자리 모여 즐겁다. **72년생** 배우자 씀씀이에 민감한 반응 보라. **84년생** 공들인 일은 가시적 성과 본다.

소: **49년생** 잘 쉬는 게 최고의 보약이다. **61년생** 문서 일은 조금쯤 버려라. **73년생** 가는 달이 장날인 격이다. **85년생** 아주많은 이성이 가슴을 흔드는구나.

호랑이: **50년생** 자녀 조언에 귀 기울여라. **62년생** 선행은 선행을 부르는 법이다. **74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리니 기대하라. **86년생** 서두르면 다 된 밥에 코 빠트린다.

토끼: **51년생** 오래된 사랑일수록 아름답다. **63년생** 협업관계자는 기운 차여 신경 써라. **75년생** 모처럼 웃음소리가 들린다. **87년생** 라인은 적과 친구를 나누지 않는 법~

용: **52년생** 규모를 맨 선수를 쳐라. **64년생**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된다. **76년생** 융통성 없는 모범생이 되지 말도록~ **88년생** 연인이 화끈한 선물을 얻는다.

뱀: **53년생** 끝없는 욕망과 싸우는 게 현실이다. **65년생** 지난 실패 거울삼아라. **77년생** 혼자서 북치고 장구도 친 격이다. **89년생** 급해도 우물가서 숭늉 찾지 말라.

말: **42년생** 광고하는 말따 자조~ **54년생** 생각이 깊으면 길에서 길을 찾는다. **66년생** 부모가 준 재능을 남은 열리. **78년생** 공들인 일은 웃음보따리 안긴다.

양: **43년생** 욕심이 모처럼 빛을 본다. **55년생** 종애생이 노릇은 쉽기라. **67년생** 이기심 내려놓으니 박수 쏟아진다. **79년생** 경쟁자가 없어 독무대서 뛰겠구나.

원숭이: **44년생** 통하지 않는 변명은 접어라. **56년생** 목에 힘 빼줘 연기가 높은 격이다. **68년생**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80년생** 공든 일은 성사가 된다.

닭: **45년생** 추진 중인 일은 가속도 붙는다. **57년생** 주변 어른을 따라야 편안~ **69년생** 적개심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 **81년생** 자기 머리가 먼저 하려는 습성 버려라.

개: **46년생** 이웃사람과 척면 승부 피하라. **58년생** 제 소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 **70년생**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한 날~ **82년생** 원하던 정보는 얻는다.

돼지: **47년생** 마음을 비우니 꿈은이 온다. **59년생** 자신 능력을 냉철히 돌아 볼 것. **71년생** 앞에 확진 그대에 박수가 쏟아진다. **83년생** 다른 곳에 눈 돌려 보라.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8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